

여수·여천·순천 등지 무의탁 노인들께

친딸처럼 점심차리고 목욕봉사

신행연장

여성불자 모임 '일심회'

"많이 드세요. 환절기에는 뜨거운 국물을 많이 드시는 게 보약이죠." 12일 여수노인복지관(관장 진옥숙)을 찾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여성불자들이 친딸처럼 정성스럽게 음식을 공양하고 있었다. 일심회(회장 이형숙)가 매월 둘째주 금요일마다 실시하는 '어르신 식사 도우미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오전 10시부터 2백여 명 분의 밥을 짓고 미역국에 오이절임, 깻잎, 김 등의 반찬을 쉬지 않고 준비했던 터라 주걱과 국자를 든 손이 지칠 법도 하련만, 회원들의 얼굴에서는 연신 관세음보살 같은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 경전으로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세운 행원(行願)을 실천한다는 생각에 몸과 마음에서 절로 신명이 나오기 때문이다.

일심회는 지난 84년 5월 여수, 여천, 순천 지역에서 살고 있는 20~40대 여성불자 17명의 공부모임으로 출발했다. 결성 전까지는 서로를 잘 몰랐다. 재적 사찰도 흥국사, 석천사, 한산사 등 각기 달랐다. 그해 5월 처음 열린 3개 도시 연합법회에서 "그저 내 가족, 내 자신만을 위해 복

을 구하는 기복신앙만을 좇을 게 아니라 경건공부도 하고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신심을 키우자"는 석천사 주지 진옥 스님의 법문에 화들짝 깨어난 이들은 법회가 끝난 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공통점이 있을 뿐이다. 이날 새롭게 발심을 한 여성불자들은 결국 스님을 찾아가 가르침을 청하고 한마음으로 공부하며 봉사도 하자는 취지에서 일심

회원 집 돌며 매월 법회 신행 점검-정보 교류

회를 결성했다. 회장 이형숙 씨는 "5년 남짓 매주 모여 스님에게 <금강경>, <천수경>, <원각경>, <육조단경>, <묘법연화경> 등을 배우면서 불법에 어느 정도 눈을 뜨자, 이를 실천하겠다는 서원이 자연스레 모아졌고, 봉사 활동에 본격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일심회 회원들은 눈코 뜰새 없는 한 주, 한 달을 보내고 있다.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정기법회는 회원들의 집을 순차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기를 서원한 일심회 보살들이 복지관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점심을 정성껏 준비하고 있다.

적으로 돌면서 봉행되는데, 이때 회원들은 <금강경>과 이산 해연선사의 '발원문'을 독송하며 신심을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 또 이 자리에서 한 달간의 봉사 활동을 발표하며, 자신의 신행을 점검받기도 하고 신행 정보도 교류한다. 봉사 활동은 매월 둘째주, 다섯째주 금요일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노인급식 봉사에서, 목욕봉사, 도시락 배달, 치매노인 간호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중 황정숙 씨 등 4명의 회원들이 5년간 실시해 온 목욕봉사는 여수, 여천, 순천 지역의 70여 무의탁 노인 할머니들에게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할머니들의 몸 구석구석을 자신들의 부모처럼 정성껏 닦으며 때를 씻어내는 일심회 회원들의

손길에 '무의탁 노인'이라는 꼬리표로 속상해 있던 할머니들의 마음의 응어리도 말끔히 씻겨 내려간다. "제대로 배워 알고 실천하겠다는 발심으로 보였던 20~40대가 이제는 40~60대가 됐다"는 이형숙 회장은 "나선 길을"이라는 말이 있듯이, 임종을 맞는 사람들을 돕는 호스피스 봉사를 하자는 공의가 모아져 있고 있어 조만간 회원들 모두 광주의 자비신행회의 '호스피스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일심회 보살들의 손길은 점점 넓어져 가고 있지만, 이들은 자신들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기뻐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a.com

주제가 있는 법문

"악을 악으로 되갚는 전쟁 연기의 도리 모르기 때문"

지금 온 세계의 시선이 아프가니스탄에 쏠려 있습니다. 이번 전쟁을 불교적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없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부시 대통령에게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끝이 나지 않는다. 오직 참음으로써만이 원한이 끝난다'는 <법구경>의 말을 인용해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참는 것만으로는 갈등이 풀리지 않습니다.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바른 이치를 이해함으로써만이 갈등이 풀릴 수 있습니다. 이치를 이해한다는 것은 연기의 도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연기의 도리를 이해했다면 테러를 당했다고 해서 전쟁으로 되갚음을 하겠다고 나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



무비스님

조계종 교육원장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부처님께서도 치욕과 민족을 내세우지 않고 타들어가는 나무 아래서 우리왕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남과 나를 구분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와 남을 구분하는 것은 적대감과 원한을 확대시킬 뿐입니다.

이번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또 다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요즘 불교를 가르치거나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기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에 유일하고 값진 최상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화두로 삼아야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연기나 인과법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아무 조건이나 규제, 차별, 지위도 없고 끈도 없는 것이 진정한 '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갖 차별과 지위와 끈에 얽매어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할 겨를조차 없습니다. 불교의 위대성은 그런 모든 조건과 규제, 차별과 지위와 제약이 없는 참나를 인식시키는 가르침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고 부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견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나'를 찾는 것입니다.

나를 한순간도 떠나 있지 않는 '나'를 찾는다는 것은 불교를 많이 안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참 나'에 대한 이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바탕위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이 들면 '나'를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의 본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참나' 찾을 수 있다 확신가지고 노력

이 목숨을 버려가며 왜 테러를 해야만 했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코살라국의 유리왕이 자신의 나라인 가비라국과 석가죽을 멸망시키기 위해 쳐들어왔을 때 타들어가는 나무 아래서 제자들과 함께 유리왕을 기다렸습니다. 유리왕은 그런 부처님을 보고 "왜 타들어가는 나무 아래에서 있느냐"고 묻자 부처님께서 "당신이 나의 조국에 쳐들어오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이 이 나무와 같다"고 답했고, 유리왕은 부처님의 말씀에 감동해 되돌아왔습니다. 유리왕은 그 후 또다시 군사를 이끌고 출정했다가 처음과 똑같이 나무 아래 있는 부처님을 보고는 또다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유리왕이 세 번 째 출정을 하자 부처님은 유리왕의 마음을 바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부처님의 이런 태도는 자존심을 내세워 무모하게 대응하는 미국의 행동이 얼마나 큰 화를 부를 수

생활속의 불교

삶은 수행의 과정이다

우리가 즐겨 쓰는 세간(世間)이란 말의 '세(世)'는 가해(可)와 度(度)라 뜻이다. 닳아지고 무너지는 것, 바뀌고 흐르는 것 이란 의미이다.

옛사람들이 인생살이를 일컬어 끈구름(繩)이라고 한 것은 허무의 흙조림이 아니라 실상을 본 나머지 내 뺨지 않을 수 없었던 말이다. 수증기가 모여 구름이 되었다가 비를 뿌리고는 다시 수증기로 흩어지듯,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은 또 그렇게 사라질 운명을 지녔다는 사실의 지적이다.

불교에서는 탄생과 죽음을 하나의 과정으로 파악한다. 태어남도 죽음도 다만 반복되는 과정일 뿐이므로 슬퍼하거나 축복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나아가서 태어남이란

곧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같고 죽음이란 곧 현 웃을 벗고 새 웃으로 갈아입는 시기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누구도 영생하는 이는 없다. 지금 이 순간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길어야 1백년 안쪽에 다 사라지고 말(근원으로 돌아갈)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태어나(生) 자라고(成) 늙어서(老) 죽는(死) 과정을 놓고 보면 태어남은 죽음에 이르는 시작이고 늙음은 다시 태어나기 위한 준비인 것이다.

우리가 공력을 들여 성취하고자 하는 일들도 예외없이 다 생주이멸의 과정을 밟는다. 고로 그 자연스런 흐름이 안타까워 어떻게든 붙잡아 보고고 애를 써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불교는 결코 허무를 가르치지 않는다. 오

히려 더 역동적인 삶을 살라고 한다. 생주이멸의 흐름에 충실한 삶이 바람직한 삶이라고 가르친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삶을 말한다. 대 순간이 시작이요 오늘날이 영원하다. 시작은 좋고 끝은 나쁘다. 그런 관념을 내던지고 오로지 지금 할 일에 충실하라고 가르친다. 모든 존재는 생주이멸의 과정을 밟으면서 결국은 근원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고로 삶은 그대로 수행 과정이다.

우리가 삶의 과정에 마디를 지어가며 거기에 스스로 성공과 실패라는 이름을 붙여주고는 있지만 불법의 이치로 보면 그것은 성공·실패가 아니라 다만 수행인 것이다.

龍眼

탈 중 공 고

- | | | | |
|-----|-----|------|-----|
| 법문사 | 법진 | 우암사 | 지공 |
| 보현사 | 묘안 | 유명사 | 문현 |
| 지장암 | 정각 | 용문사 | 성도 |
| 유신암 | 평등각 | 불성사 | 청월 |
| 청룡사 | 지연 | 계명사 | 중안 |
| 갑성사 | 법륜 | 태봉정사 | 계명 |
| 지장암 | 범성 | 연실암 | 태봉 |
| 정토암 | 초이 | 대덕사 | 의연 |
| 각성사 | 경공 | 자비암 | 묘진 |
| | | | 자비행 |

귀 종단의 종풍 종지가 맞지 않아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대한불교 삼론종 총무원장 법하

2001. 10. 15



(대한민국 통일서대전 입상 및 대한민국 동양미술대전 제11회 특선 작품)

동경국제서대전 제19회에서 준대상 당선작품

진인경신도통 비법에 전하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

● 당신은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무엇이 고민하십니까?
귀하는 인생의 스승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진인도통군자제위 귀하를 뉘우친 대법회에 초대합니다. 심통천문 허탈지리의 비전인 천문유초에 갖추어진 오경명성과 서성명성 진법이 유성에 배설을 벗기는 경신일법 자의와 오시에 진인도통군자들에게 원방각 해인도법을 직접만아 즉시 도통하고 즉시 성불하는 이법법회에 귀하를 초대하며 다시 없는 기회이오니 동참하시어 도통하시어 되시길 바랍니다.

달미의 진법을 수강반은 오실 분은 동참하시어 바랍니다.

진인 경신 도통으로 영과 혼을 담았던 달마상의 비법은 세태양의 법도로 흥한터, 수맥차단 초상상문, 사업강, 이사 개입 노력해도 안되는 도통과 학업, 진학, 고시등 일체 마장을 소멸할 수 있는달마도상을 모셔 소인성취하시어. 사단법인 한국불교달마중 총 본산 교육원 입문안내 - 달미종의 근본 법도와 종교의 정종과 진정한 종교의 근본 진리를 통하여 자성보와 득도전성 성불하여 만인을 구하고 위로는 꺼져가는 민족의 얼과 종교의 근본 혼을 찾아 지구촌 이그러진 법도를 바로세워 사람됨 도리를 다하여 만중생들의 고통을 구제하고 바른길의 지도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람 사할 등록을 본 종단 달마중에 입문하시어 새천년을 이끌어갈 종교의 스승에 길을 다하시어 바랍니다. 본 종단의 뜻을 같이하고 만중생을 제도할 달마중에 몸을 담고자 하는 도반과 인연있는 후원자 및 복지지의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제 66회 응조달마진인경신도통하여 세계평화 종교통일 일류평화이룩하자

응조달마진인경신도통이란 열라대왕 경자로서 생명을 관장하고 만물을 관리하는 것이므로 선천법도는 가고 후천대운으로 세계 인류평화종교를 통일 할 수 있는 초능력을 득도하여 세태양 세운기 도법으로 상통천문 허탈지리에 갖추어진 원방각 해인법도인 진부경 지부경 인부경 예단경월단법으로 진인도통군자 대인류의 스승되어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특별기도임을 명심할 지이다. 천문도통이 되는 날이 옥실일에 한 번 열림으로 양력 10월 23-24일 자시와 오시에 다시없는 법의 갖대를 얻어 천안동 타성 통 천리통에 도전하시어 신비의 초능력의 갖대를 얻어 지구촌의 이그러진 법도와 종교의 얼과 혼을 바로 세워 종교의 병 옥실의 병 마음의 병 경신일의 병 잠신의 병을 제도 할 수 있는 십이식의 법장보살에 도전하시어 열라대왕을 제도할 수 있는 대도통군자 영통능력자 되소서 하늘의 근본법도를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지껄이는 잡도에 팔리어 태산같은 병으로 동타 죽음을 알지 못하고 도인인 적 하면 하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남의 공덕을 대접 받고 갈을 줄 모르며 스승사자를 알지 못하면 중음신과 잠신에 극성으로 병명도 없이 우환질병, 고통과 근심으로 급상 단명 중풍에 시달리는 것을 의 모르고 계십니까. 진인도통군자들은 태산같은 중병의 삼독을 벗고 앉아서 심한할 공부할 단 한번의 경신입문으로도 말문과 영통비법과 자성통을 건설하고 토통하여 건강수명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초능력을 영통능력으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진인경신도통에 입문하여 소원성취하시어 바랍니다. ● 총본산: 경북 영천시 학북면 죽전리 757-1

●입제: 양력 10월 23일 해시 ●해제: 양력 10월 24일 해제
동참하시는 분은 마음을 넉넉하게 하시고 욕심을 버리는 자만이 도통에 입문하시어 자기가 뒤는 공덕으로 초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02) 821-6622 / 821-7767~8 / 016) 239-3110
(1호선 노랑진역 차차, 2호선 신림역 7번출구,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2번출구 버스 85,25,95,26,303,142,26-3 모차원고개 하차. 동직구약사회교육원구

熊祖達磨 진인 경신 도통회장 天龍 泰日法師
사단법인 한국불교 달마중 총 본산 교육원 달미선원장 真人 泰日法師